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럴리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과 약속한 또다른 칠 년이 끝났다. 지금까지 십사 년을 일했지만 야곱의 재산은 없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데려온 값으로 라반을 위해 짐승을 길렀을 뿐이다.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에서가 모든 것을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소식은 오지 않았지만 라반의 집에 더 머물기 싫었다. 십사 년 동안 야곱의 목축으로 라반의 재산만 늘어났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 창세기 30:27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며 야곱을 회유한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니. 속아서 결혼해서 십사 년을 일하고도 빈손인데, 사랑스러울리가 없다. 라반이 생각해도 야곱은 정말 일을 잘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야곱만한 일꾼이 없었다. 야곱 스스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 창세기 30:28

라반은 야곱을 붙잡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십사 년 동안 누려온 이익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야곱의 품삯으로 자신의 두 딸을 지불한 라반이었다. 두 딸은 결혼을 했어도 라반의 집에 머물렀고 그녀들의 노동력도 라반의 소유였다. 라반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수익구조는 없었다. 십사 년 동안 누려온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라반이 새로운 임금협상을 제안한다. 얼마를 주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야곱을 너무 짧게 봤다. 야곱이 말한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 창세기 30:31

점박이, 얼룩이를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자기 몫으로 요구했다. 암수 한 편이 점이나 얼룩무늬가 있으면 새끼도 점박이, 얼룩이로 태어난다는 것을 야곱도, 라반도 알고 있었다. 목축을 하루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때부터 라반과 야곱의 머리 싸움이 시작된다.

야곱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라반이 아니다. 지체 없이 얼룩무늬, 점박이들을 모두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 거리되는 곳으로 이동시켜버렸다. 야곱이 자기 몫을 인수하려 했을 때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야곱도 피를 낸다. 푸른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걸쭉질을 벗겨 흰 무늬가 드러나게 한 다음 그 가지들을 짐승들이 물을 먹는 구유에 꽂아두었다. 보기 좋으라고 꽃꽂이를 한 것은 아니고 껍질을 벗겨 흰 무늬가 있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어서, 그 무늬가 새끼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싶은

야곱의 염원인데, 말도 안되게 정말 그렇게 태어나버렸다. 야곱의 행위는 일그러진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던 것이다.

라반이 볼 때 야곱이 꽃아놓은 흰 나뭇가지는 은근히 마음이 놓이는 표시였다.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다'인데 마치 야곱이 라반의 양들이라는 표시를 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계약은 실패로 돌아갔다. 점박이, 얼룩이를 최대한 골라내면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이 희거나, 검을줄 알았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새하얀 양도 얼룩이나 점박이가 낳은 것이 있었고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 얼룩이가 태어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야곱의 몫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미 두 아내를 위해 십사 년도 일한 야곱이었다. 어차피 가나안에서 오라는 기별도 없고, 빈 손으로 갈 수도 없으니 흰 나뭇가지를 걸어서라도 최선을 다 한다.

속이던 야곱이 라반을 만나 속임을 당하고,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장인과 사위가 됐다. 재산은 늘어가고 있지만 불안과 긴장은 점점 쌓이고 있다. 피를 내고 속여서 무언가 얻어도 마음의 평안함은 얻을 수가 없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 잠언 16:8